

2009년도

(재)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URC) 연구보고서

후쿠오카·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일연대사회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후쿠오카·부산간 고속선 이용자
(한국인·일본인 여행자)
관광동향조사

요 지



U R C
Fukuoka Asian
Urban Research Center

2010년 3월

요지

I. 한일관광교류의 동향과 전망

한일관광교류는 방한일본인이 많았던 일방통행 시기에서 21 세기에 접어들어 구조적으로도 변화를 거듭해 쌍방향으로 대등하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안전에 관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받았던 매년의 변동은 보이지만 확대기조에 있다.

현재 양국간에는 관광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일관계는 일찌기 「가깝고 먼 나라」라는 의식을 넘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산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 있지만, 양국민 간의 시민교류, 관광교류를 통해 문제의 상호이해와 관계의 심화(深化)한 대처가 기대된다.

II. 후쿠오카·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일관광교류의 동향과 조사개요

한일관광교류가 활발히 전개 되면서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후쿠오카·부산을 중심으로 한 규슈와 한국남부에 있어서 지리적인 근접성을 살려 일본에서는 그 밖에 유례가 없는 선박을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하는 왕래, 관광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URC 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근거로 하여 후쿠오카·부산간 고속선 항로이용객을 대상으로 앙케이트조사를 2007 년부터 3 년간에 걸쳐 실시하여 한일관광교류의 실태나 과제를 경년적(經年的)으로 파악하는 등 연구를 축적시켜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의 분석을 기초로하여 한일관광교류의 확대나 관계의 심화에 대해 고찰한다.

III. 일본인 이용객 관광동향

일본인 이용객 관광동향의 조사결과에서 여행 행동의 특징으로서 부산항 도착후 부산시 중심부의 한정된 지역을 행동범위로하는 1 박 2 일 단기체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 이용객의 여행목적·체험내용으로서 「음식」 「쇼핑」 이 과반수를 차지해 「역사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사람은 적고, 「음식」 「쇼핑」 중심의 부산체제 도시관광이 주류로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차후 여행에서는 「음식」 이나 「쇼핑」 보다도 「체험·교류」 형 활동 메뉴나 「역사문화유산」을 위한 방문을 희망하는 회답율이 높고, 한국 지역에 있어서는 「체험·교류」 형 관광 메뉴의 충실이나 소재(所在)하는 「역사문화유산」에 있어서 일본인 관광객 수용 태세의 준비나 정보발신에 임하는 것이 양국 관광교류의 확대나 관계 심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한국인 이용객의 관광동향

한국인 이용객 관광동향의 조사결과에서 여행 행동의 특징으로서 하카타항 도착후 후쿠오카현내 뿐만 아니라 규슈 각현의 도시나 유적지 등의 관광지, 온천 등을 방문, 숙박하는 2 박 3 일 규슈내 주유(周遊)관광이 주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 이용객의 여행목적으로서 「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체험내용으로서 「역사문화유산」 「온천」의 회답율이 높았다.

차후 여행에서는 「체험·교류」형 활동 메뉴를 희망하는 회답율이 높고, 규슈 뿐만 아니라 일본지역에 있어서 「체험·교류」형 관광 메뉴에 대해 한국인 관광객 수용태세의 정비나 정보발신에 임하는 것이 인 바운드 관광 진흥 뿐만 아니라 양국 관광교류의 확대와 관계의 심화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한일 이용객 관광동향조사에 대한 고찰

한일 이용객의 관광동향으로서 일본인 여행자는 「음식」 「쇼핑」 중심의 1박 2일 부산체제 도시관광, 한국인 이용자는 2박 3일 규슈내 주유관광이 주류가 되고 있어, 한일 여행자의 대조적인 여행행동이 차이점으로 밝혀졌다. 또한, 「역사문화유산」의 방문율이 높은 한국인 여행자와 방문율이 낮은 일본인 여행자의 여행 행동도 차이점이었다.

고대부터 2000년 이상에 걸쳐 교류 루트로서 한일교류의 「역사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는 후쿠오카·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규슈, 한국남부지역에 있어서는 이들 유산을 지역자원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고, 국가 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지역간 관광교류를 통해 선구적으로 상호이해를 진행시켜 관계의 심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대된다.

한일 이용객 관광동향의 공통점으로서 여행일정의 단축화, 여행비용의 저가격화, 리피터의 증가, 개인여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차후 여행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으로 「각종 교류 활동」 「스포츠」 「이벤트참가·감상」 등의 회답율이 공통적으로 높고, 한일 지역에서 「체험·교류」형 활동 메뉴의 충실이나 수용 태세의 정비에 임하는 것이 양국의 관광교류 확대와 관계 심화를 위해서 기대된다.

VI. 대마도에 있어서의 한일관광교류의 대처

한일 해협간의 낙도, 대마도에서는 침체하는 지역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리적, 역사적 근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과의 관광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일 여행자가 참가, 교류할 수 있는 「체험·교류」형 이벤트나 투어개최, 특구제도를 활용한 향후 한일교류를 담당할 인재육성 등, 한일 관광교류의 확대와 관계 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점이나 요소가 포함된 선진적인 대처로서 흥미롭다.

VII. 한국인 이용객의 주유 행동분석

고속선 이용의 한국인 이용자의 후쿠오카를 기점으로 한 규슈에서의 주요한 주유 루트는, 후쿠오카, 구마모토/아소, 벳부/유휴인을 방문하는 루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숙박지 선택에 있어서 후쿠오카·구마모토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여 후쿠오카 시내의 충실한 숙박시설이나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방사상에 정비된 교통 인프라망을 염두에 둔 각 지역의 숙박객 유치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사되었다.

2009 (平成 21) 년도
후쿠오카·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일연대사회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후쿠오카·부산간 고속선 향로이용객 (한국인·일본인)
관광동향조사보고서 <요지>

2010 년 3 월

재단법인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담당 研究主査 아라이 나오키
(본편 제 I · II · III · IV · V · VI 장 집필)

研究主査 다무라 카즈키
(본편 제 VII 장 집필)

〒810-0001 福岡市中央区天神 1 丁目 10-1

Phone 092-733-5686

E-mail info@urc.or.jp

URL <http://www.urc.or.jp>
